

제66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0월 30일)

주제전시 <관아와 누정이 있는 그림>

오다연 | 서화실 II | 18:00~18:30

상설관 서화실에서는 특별전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 조선시대 실경 산수화’와 연계하여 주제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관아와 누정이 있는 그림>(2019.7.9.~11.10)은 그림 속에 실제 건축물이 그려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의 근무지인 관아官衙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자 왕을 향해 절하는 망궐례望闕禮나 사신 접대, 관료의 모임 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반면 사방이 트인 누정은 업무에서 벗어나 주변의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문예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진 관아와 누정에는 조선시대 선비 문화가 담겨있습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선비들은 출세出世와 입신양명立身揚名 위해 공부하는 한편,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그 가운데 자유롭고 유쾌한 마음을 길렀습니다.

<북새선은도北塞宣恩圖>는 과거 시험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의 객사와 합격자를 발표하는 함흥의 관아가 그려졌습니다. 화원 한시각은 1664년 함경도에서 실시된 문무과 과거시험 및 발표장면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청록으로 곱게 채색하였습니다. <송도사장원계회도松都四壯元契會圖>는 사계절에 맞추어 개성의 아름다운 명승명소를 표현한 병풍입니다. 본래 이 병풍은 1612년 개경에 근무했던 관원 네 명이 각기 다른 시험의 장원 급제자였음을 기념하여 모임을 하고 이를 기념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후 파손된 병풍을 160년이 지나 다시 제작하였고, 옛 병풍을 옮겨 <화담의 꽃놀이[花谷尋芳]>, <박연폭포 감상[朴淵觀瀑]>, <만월대에서 옛일을 회상[滿月懷古]>, <지족사의 종소리 듣기[지족문종知足聞鐘]>가 그려졌습니다. 독립장에는 정선鄭敼과 그의 손자인 정황鄭槲이 그린 한양 장동壯洞 일대의 명승명소 그림이 전시되어있습니다. 그림 속 빼어난 장소를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당시의 풍류와 그림의 기능도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시각韓時覺 (1621~1691 이후), 조선 1664년, 비단에 색, 국립중앙박물관(덕수 4065)

우리나라 역사문화유산에서 기·화생의 확산과 상승을 표현한 예

조원교(趙源喬) | 가야실 | 18:00~18:30

1. 들어가기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여러 표현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에 개념, 의미, 상징을 부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 갔습니다. 따라서 즐기치게 전개된 표현에는 개념, 의미, 상징 그리고 나름의 역사와 체계를 이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유산에 있는 여러 표현 가운데 기·화생의 1) 확산과 상승을 2) 뚜렷하게 표현한 예들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들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우리 겨레의 역사문화강역에서 출발, 전승된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입니다. 기존 일부 학자들은 근거도 없이 이 표현들이 정치精緻하고 높은 이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중국에서 전래되었거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장한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비근卑近한 예 조차 ‘원原 중국 지역(오늘날 중국 하남성·섬서성 일대)’이나 ‘현재 일본 영역’ 안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이 표현이야 말로 우리 겨레의 역사문화의 금자탑, 신역, 성역이고 우리 겨레 역사문화의 독자성과 독보적 영역, 대표, 상징입니다.

1) 기초 표현 1

기·화생의 확산과 상승의 기초 표현은 점문, 직선문, 파문(巴文), 삼각문, 원문, 동심원문, 나선문(소용돌이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양들은 상호 동격 호환 교호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문, 직선문, 원문, 동심원문, 나선문(소용돌이문), 곡선문의 경우는 태양의 대표 기운으로 여기는 빛을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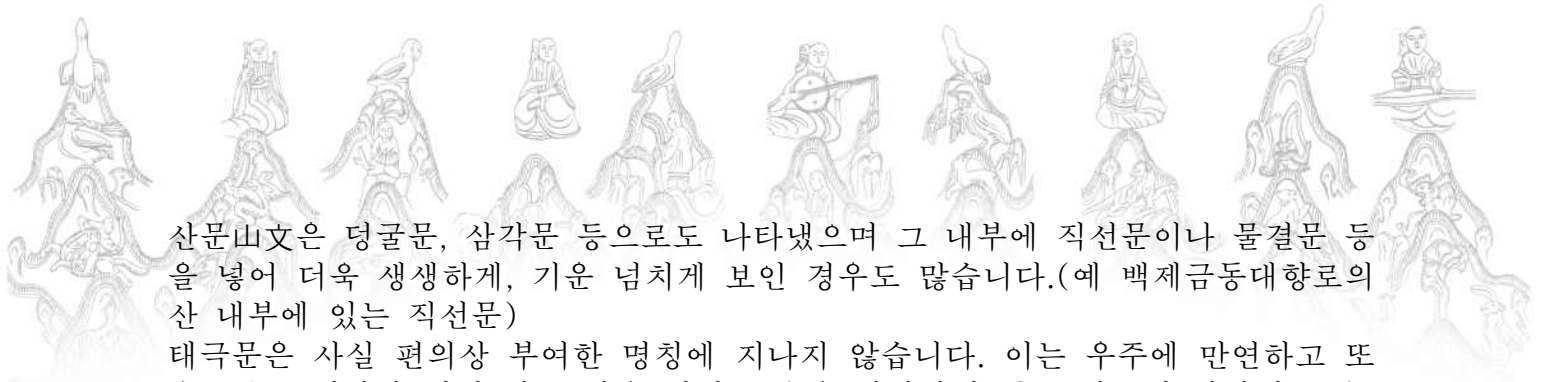
2) 기초 표현 2

기초 표현 2란 대개 기초 표현 1보다 기·화생의 확산과 상승의 모습이 보다 높은 단계, 보다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덩굴문, 산문(山文), 태극문, 방사선문, 연속문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초 표현 1에 열거한 문양들이 함께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문양들은 상호 동격 호환 교호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덩굴문은 삼국시대에 이르면 사실상 연화문의 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경우의 덩굴문에 ‘덩굴 연화문’이란 새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덩굴 연화문을 당초문, 연화당초문, 서양에서는 팔메트(palmett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기(氣)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化生이다. 화생은 생명을 향한 일련의 변화(화생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중간 과정 포함), 생명 탄생의 표현이자 도상(圖像)이다. 연꽃에서 생명이 변화되는(나오는) 蓮華化生도 화생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주장하는 필자의 논문들은 이 논문의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대표 논문은 「蓮華化生에 登場하는 裝飾文樣 考察」이다.

2) 이 확산과 상승에는 생명의 탄생을 비롯하여, 발전, 성장, 영원함 등을 아우른다고 본다.



산문山文은 덩굴문, 삼각문 등으로도 나타냈으며 그 내부에 직선문이나 물결문 등을 넣어 더욱 생생하게, 기운 넘치게 보인 경우도 많습니다.(예 백제금동대향로의 산 내부에 있는 직선문)

태극문은 사실 편의상 부여한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에 만연하고 또 우주를 구성한다 여긴 아주 많은 기의 모습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어 나타낸 모습, 문양입니다. 그리고 삼태극, 사태극은 태극문 보다 좀 더 복잡한 모습, 단계입니다. 나아가 이 문양들 역시 기초 표현 1이나 기초 표현 2로 소개한 문양들, 특히 파문(巴文), 나선문(소용돌이문)과 기·화생 표현에 있어서 동격, 호환, 교호 관계에 있습니다.

방사선문은 중앙에서 외곽으로 기·화생이 확산 진행됨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직선문, 태극문을 아우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선문 대신에 파상문, 덩굴문을 배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3) 연화문

연화문은 연꽃을 표현한 문양 또는 도안하여 의미, 상징을 부여한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 문양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경우보다도 위에서 소개한 기초 표현 1, 기초 표현 2 등 많은 문양과 함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연꽃이 다른 어느 문양보다도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표현된 것은 그 의미, 상징을 높게 여기고 많이 애호한 결과입니다. 특히 만물을 화육시키는데 으뜸을 차지하는 태양을 상징하고 의미한 꽃, 기원후 3~4세기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부처와 불교세계를 대표, 상징하는 꽃인에서 표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 기·화생의 확산과 상승을 표현한 예

1) 신석기시대 3)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소위 빗살무늬토기에는 점문, 직선문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이 두 문양 이외에도 삼각문, 나선문, 덩굴문도 있는데 이들은 보다 진전, 발전 단계의 표현입니다. 이 모두는 기·화생의 확산과 상승 표현이고, 특히 태양의 기·화생 표현입니다.

이 문양들은 삼국시대 토기 등에 그대로 계승되며 특히 연속 삼각문의 경우는 산의 모습으로도 이어집니다. 연속 삼각문의 내부 또는 외부에 많이 표현한 직선문은 이미 시 기기부터 기·화생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통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로 이어졌습니다.

2) 청동기시대 4)

기·화생 표현 대부분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것을 계승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더 뚜렷하고 치밀한 단계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여러 문양을 구사하여 극도로 치밀하게 표현한 동경과 팔주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의 기·화생의 모습, 외곽으로 성장과 발전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동시대 이웃 나라 원중국 지역(오늘날 중국 섬서성·하남성 일대), 일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겨레의 독보적이고 우수한 자랑스러운

3) 신석기시대 토기의 연대는 기원전 5000년경~기원전 2000년경이다.

4) 청동기시대 청동기의 연대는 기원전 2400년경~기원전 600년경이다.

역사문화역량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 전래 이전 시기에 불교미술의 광배와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즉 중앙에서 외부로 성장 발전이 전개되며 동시에 외쪽을 향한 성장 발전의 모습입니다.

영천 어은리 출토 청동기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을 네모지며 인간은 그 중간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주적 도형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기에는 사방으로 전개되는 기·화생 모습을 4엽의 연꽃으로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후 삼국시대에 수용된 불교 도상 등을 정착, 발전시키는 데에 밑거름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삼국시대~조선시대

청동기시대의 뛰어난 기·화생 표현 역량은 이 시대에도 여전 지속되었으며 특히 금속제품에는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연꽃 표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연꽃이 지닌 높고 의미 깊은 상징을 부여받으려는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이 연꽃 표현은 원 중국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도 있지만 그 기본, 골격은 우리나라 신석기~청동기시대에 있다. 즉 원 중국 지역과 분명 다른 노선임을 거듭 밝히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속에서 줄기차게 지속된 이 표현들이 15세기경까지 크게 유행하다가 그 이후 급격하게 사라지거나 몇 공예에만 잔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수증 높은 고도의 사상과 관념을 담은 이 표현들보다 단순, 절제, 간결함을 숭상하고 추구하던 유교적 사조가 점차 지배층의 사고로 자리 잡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사례를 들면 15-16세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도자기나 칠기의 문양인 연화문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사대부들이 즐겨 감상하던 사군자, 산수, 화조, 정물 등으로 채워진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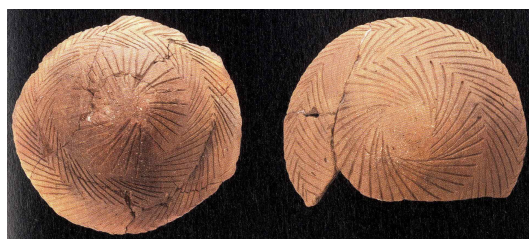
고려시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태극과 팔괘를 조합한 태극기와 비근하거나 같은 표현(도안)이 지속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본래 기·화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기본 이치·요소, 만물의 생성·변화·발전하는 모습, 생동하는 기운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길상과 구복(求福), 벽사(辟邪: 사악한 귀신을 쫓는 것) 목적 또는 유교 교육에 활용하려고 표현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도1)서울 암사동 출토 토기(1)

신석기시대, 고 25.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2008년, p.90. <직선문은 삼각문으로 발전, 전개되었다.>

(도2)서울 암사동 출토 토기(2) 신석기시대, 고 25.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땅속에서 찾은 옛 흔적들 - 암사지구 출토유물 기획전』, 2010, 도 13-5. <이처럼 밑에서 바라보면 전체 문양 흐름이 중앙에서 외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청동기시대 동경 문양(예, 도11-도13)과도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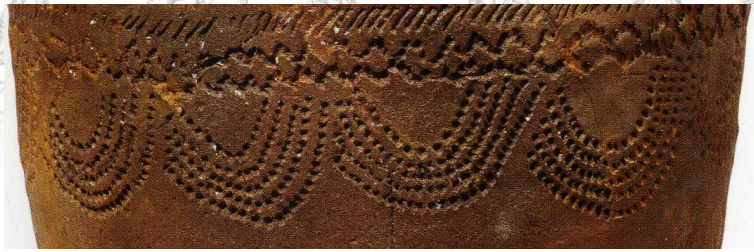


(도3)서울 암사동 출토 토기(3)

신석기시대, 고 25.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땅속에서 찾은 옛 흔적들 - 암사지구 출토유물 기획전』, 도34. <우측에서 보듯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나선문(소용돌이문)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도4)서울 암사동 출토 토기(4)
신석기시대, 고 2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91.



(도4-1)<직선문 만이 아니라 연속 덩굴문, 연속 삼각문까지 있다. 이 덩굴문 삼각문 직선문은 상호 호환 동격 교호 관계에 있다.>



(도4-2)<직선문도 좌우 교차 표현을 하였다.>



(도5)함북 경성 원수대 출토 토기
신석기시대, 고 1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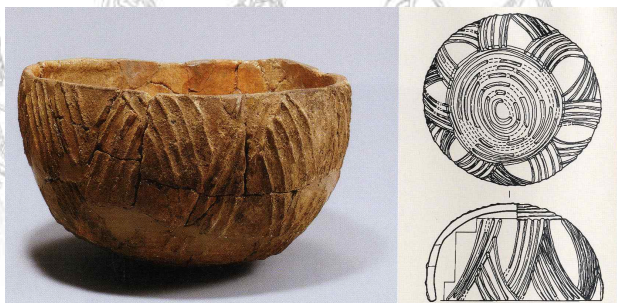
(도5-1)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99. <연속 덩굴문이 이처럼 응용 단계에 있다.>



(도6)양양 오산리 출토 토기 신석기시대, 고 26.1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p.16. <내부에 직선문은 기·화생의 표현이다. 이러한 모습의 연속 삼각문은 청동기시대나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한 갈래는 산 표현으로도 이용되었다.>



(도7)강원도 고성(高城) 문암리 출토 토기 신석기시대, 고 2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84. <역시 연속 삼각문이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응용 단계인 것이다. 이 모습도 후대로 계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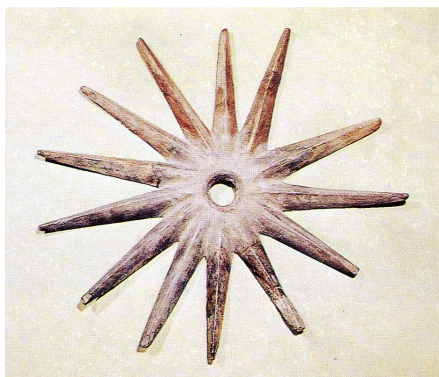


(도8)통영 연대도 출토 토기 신석기시대, 고 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86. <연속 삼각문에 약간 곡선을 넣었는데 마치 연화문과도 같다. 아니 연화문일 수도 있다. 중앙에 해당하는 밑 바닥은 태양문의 대표적인 동심원문이다. 만약 정녕 연화문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신석기시대부터 기·화생 표현을 동반하는 연화문이 이미 등장된 것을 의미한다.>



(도9)부산 영선동 출토 토기

신석기시대, 고 8.4cm, 부산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p.86. <물결과도 같고 아지랑이나 불꽃과도 같은 모습이다. 필자는 이 모습은 상승하는 기·화생 표현으로 본다. 불교 미술인 광배에 있는 화염문이 이미 불교 전래 이전부터 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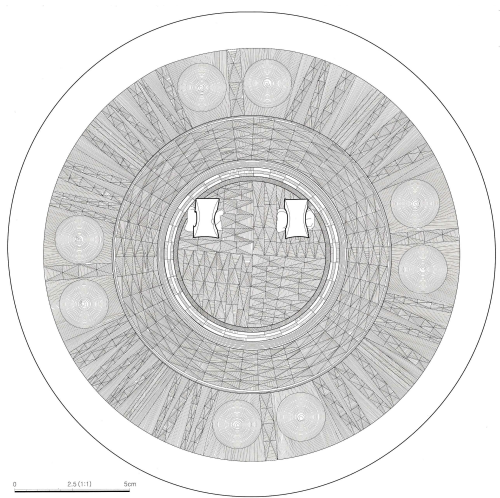


(도10)평양 쉼바위休岩里 출토 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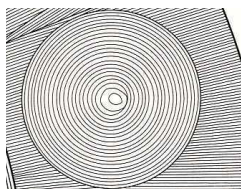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직경 27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북한문화재도록』, 도187. <중앙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기·화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신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태양의 기·화생 표현으로 본다.>



(도11)전(傳) 익산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지름 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 2598), 동화출판공사, 『원시미술』, 1973년, 도115. <태양의 모습이자 태양의 기·화생 모습이다. 크게는 네 방향,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기·화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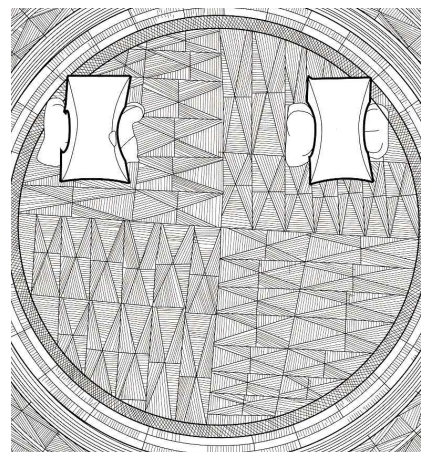


(도12)전(傳) 논산 출토 동경의 복원 도면 청동기시대, 지름 21.2, 국보 제141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2009년, p.139. <태양의 기·화생이 확산함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냈다. 동그라미 8개는 중앙에서 시작한 화생이 이후 새로운 태양, 생명으로 전개됨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8개를 네 방향에만 나타낸 것은 기·화생의 확산 큰 줄기가 네 방향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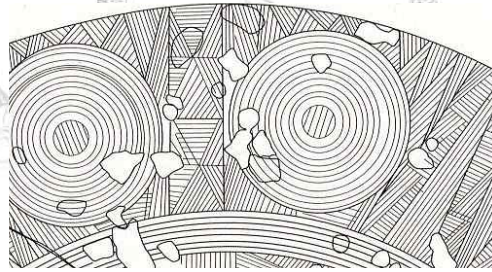
(도12-1)화생된 작은 태양 표현이다. 역시 태양이므로 태양문의 대표적인 동심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원문은 (도13-1)·(도14-1)·(도23-1)·(도24-1) 문양과 동격, 즉 같은 태양문이다.>

(도12-2)무수한 태양의 기·화생을 직선문과 삼각문으로 나타냈다. 여기서 직선문은 기운이자 화생의 원동력 표현이기도 하며, 삼각문을 구성하는 기초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동경에 있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삼각문 구성은 (도6)(도7) 특히 (도7)보다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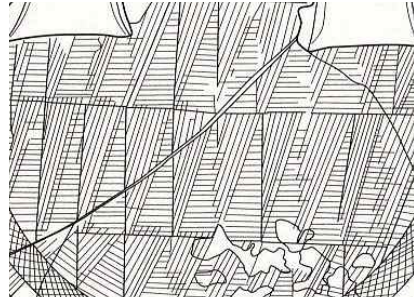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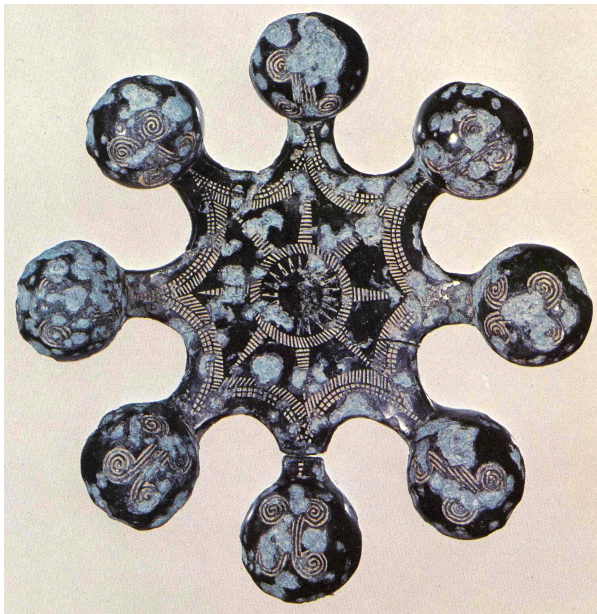
(도13)영암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지름 13.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동화출판공사, 『원시미술』, 1973년, 도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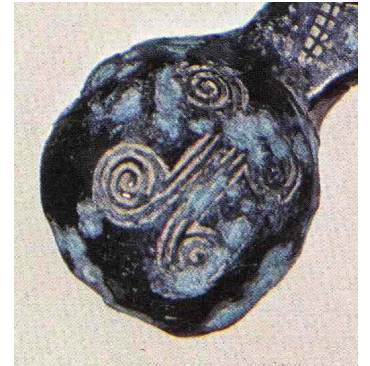
(도13-1)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거꾸집과 청동기』, 2011년, 7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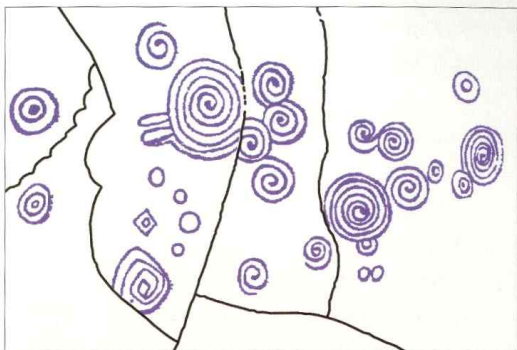
(도13-2)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거꾸집과 청동기』, 78면



(도14)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 팔주령 청동기시대, 지름 12.3cm, 국보 제143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미술전집』 1 원시미술, 도91. <중앙에 중심 태양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시작한 태양의 기·화생 확산이 모든 방향으로 전개됨을 나타냈다. 기·화생 확산이 크게 8방향으로 집약됨을 8개의 원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중앙과 8개 원구형 태양은 직선문·삼각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문양은 기·화생 확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모습,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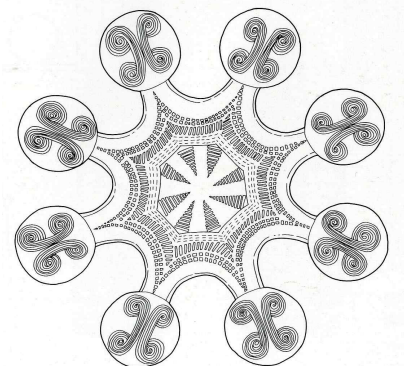
(도14-1)<이 전체 모양은 원구형(圓球形)이다. 이 모습 만으로도 작은 태양이다. 또한 이 원구형 안에는 나선문(소용돌이문)을 넣었는데 이 역시 동심원문과 함께 태양을 나타내던 대표적인 문양이다. 그런데 약간 길쭉하게 나타낸 것은 기·화생이 중앙에서 외곽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또 마치 짧은 덩굴문처럼 나타냈는데 이는 직선문 나선문 동심원문이 덩굴문과 상호 호환 동격 교호됨을 보여 준 것이다.>



함경북도 무산 지초리 암각화 실측도 _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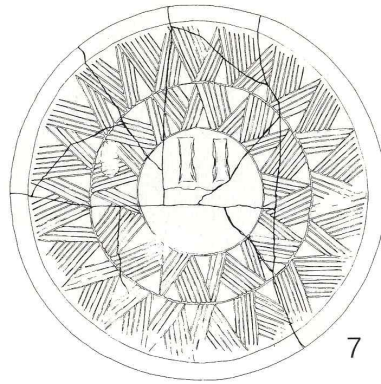
(도15)함북 무산 지초리 암각화 실측도, 전호태, 『환문총』, 서울 김영사 출판, 2014년, p.83. <태양을 동심원문이나 나선문(소용돌이문)으로 표현하였다.>

(도16)전 상주 출토 청동 팔주령 실측도(실물은 현재 행방 불명), 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한국의 청동기문화』, 1992년, p.103, 도면 17. <이 팔주령의 여덟 개의 작은 원구형도 화생된 작은 태양 표현이다. 이 작은 태양 표현 마다 안에 태양문(나선문)을 넣었다.>





(도17)중국 길림성 통화 영액포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고조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2009년, 23면 도5.<태양의 모습이자 태양의 기·화생 확산하는 모습이다. 원문, 삼각문, 작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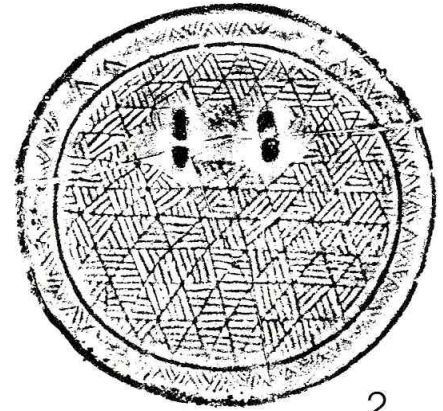
(도18)아산 남성리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고조선, 지름 17.6,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23면 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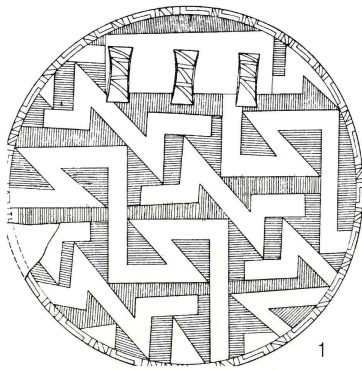
(도19)중국 길림성 통화 대가산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고조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23면 도6.<태양의 기·화생 확산을 나선형에 가깝게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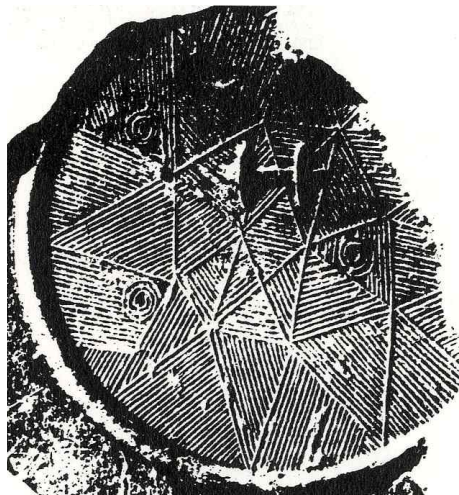
(도20)중국 요녕성 建平 大拉罕溝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2009년, p.20.<태양의 모습이자 기·화생 확산을 더욱 다양하게 도안하였다.>



(도21)익산 다송리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p.23.<태양의 모습이자 기·화생 확산을 더욱 다양하게 도안하였다.>



(도22)중국 요녕성 조양朝陽 十二臺營子 출토 동경, 청동기시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p.20, <태양의 모습이자 기·화생 확산을 더욱 다양하게 도안하였다.>



(도23)평남 맹산 출토 동경 범范, 청동기시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다뉴세문경』, p.23.<태양의 모습이자 그 기·화생 확산을 도안하였다.>



(도23-1)<이처럼 몇 개의 나선문(동심원)을 넣었는데 이는 이 동경 모든 문양이 태양 표현임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는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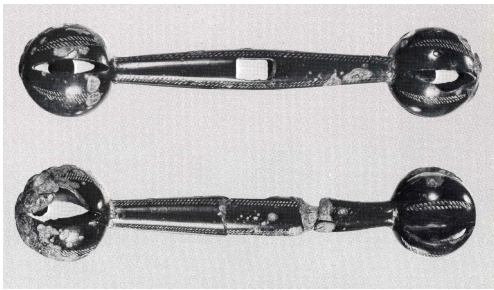
(도24)傳 논산 출토 청동기, 청동기시대, 고 15.8cm, 국보 제146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동화출판공사, 『한국미술전집(1 원시미술)』, 도84. <이 모습 또한 맨 위에 위치한 중앙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태양의 기·화생이 확산 전개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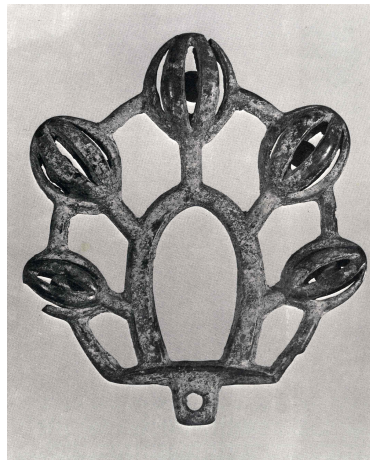
(도24-1) <앞 (도14)~(도16)에도 있는 태양문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직선문과는 상호 동격 호환 교호되는 문양이 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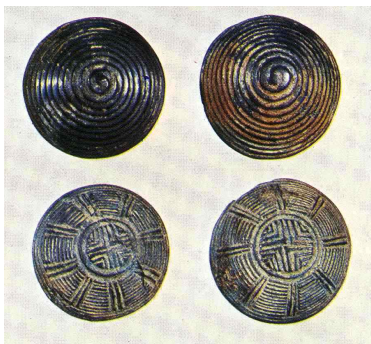
(도25)전 논산 출토 청동기, 청동기시대, 길이 16.8, 국보 제146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동화출판공사, 『원시미술』, 1973년, 도92. <태양의 기·화생이 좌우로 전개되며 동시에 교차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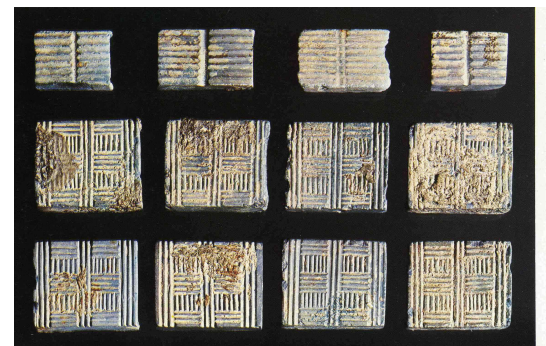
(도26)傳 논산 출토 청동기, 청동기시대, 길이 17.5, 17.9cm, 국보 제146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동화출판공사, 『한국미술전집』 1 원시미술, 도89. <태양의 기·화생이 좌우로 확산 전개됨을 나타냈다. 내부에 직선문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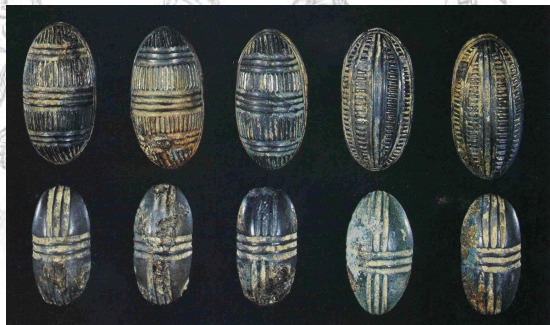
(도27)전(傳) 고령 출토 청동기 청동기시대, 길이 12.1, 서울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 동화출판공사, 『한국미술전집』 1 원시미술, 도93. <전체 모습이나 세부 표현이 태양의 기·화생이 중앙에서 여러 방향으로 확산 전개되며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다. 상승을 나타내려 원구형도 원추형으로 나타냈다. 이 전체 모습은 훗날 불교미술의 광배와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원추형 부위는 화불이 배치될 곳 즉 화생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연화문에 해당된다.>



(도28)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 圓形 청동 장식 청동기시대, 2.1~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6709-6710), 『한국미술전집(1 원시미술)』, 도121. <우주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원(동그라미나 나선문)으로 하늘의 둥글고 원만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이 원(원형)에도 직선문으로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는 기·화생을 표현하였다.>



(도29)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 방형方形 장식, 청동기시대,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6723), 『한국미술전집(1 원시미술)』, 도121. <우주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네모로 땅이 네모지고 반듯한 것임을 나타냈다.>



(도30)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 원추형圓錐形 장식, 청동기시대, 2.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6722), 『한국미술전집(1 원시미술)』, 도122. <우주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원추형은 하늘의 원과 땅의 네모의 중간 모습이다.>



(도31)영천 어은동 출토 청동 연화문 장식 청동기시대, 지름 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6717), 『원시미술』, 도122. <天地人의 우주 표현을 아주 능숙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이처럼 기·화생을 연꽃 모양으로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꽃은 우주적 연꽃이다. 불교 전래 이전 우리나라 쪽 고유의 연꽃 표현이다. 네 꽃잎은 우주적 연꽃의 기·화생 확산이 네 방향으로 전개됨을 나타낸 것이다.>



(도32)평양 임원면 淸湖리(上新水리) 출토 기와, 고구려, 井内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圖譜』 2, 1976년, 도 110. <이 고구려 연화문 기와는 불교 전래 이전 우리나라 쪽의 전통 표현을(도31)을 계승한 것임을 대변하고 있다.>



(도33)안동 서신리 출토 활석제 목걸이, 청동기시대, 長 41.6cm,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011년, p.25. <청동기 시대에 소용돌이 표현이 이미 난숙한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도34)청동 견갑, 청동기시대, 장 23.8cm, 폭 17.8cm,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동경국립박물관, 『日本と東洋の美』, 1992년, 도40. <안에는 중심 문양인 동물문과 태양문이 있다. 테두리에는 직선문 삼각문으로 구성된 문양이 있다. 이 테두리 문양은 기·화생의 영역 표현이다.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 청동기(보물 제1823호)도 같은 구성, 표현 방법을 보여 준다.>



(도35)함안 우거리 출토 토기 뚜껑, 가야, 지름 21.5,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08년, 169면 도308.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 동경 팔주령 등에 있는 도상을 그대로 수용, 계승하였다. 비슷한 몇 예가 경남 지방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일예: 함안 윤외리 출토 토기 지름 17.5,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08년, p.170). 이 가운데에는 동물과 나무로 보이는 물체도 함께 표현하였다.>

(도34-1)<동물 옆에 이처럼 태양문도 함께 표현하였다. 이 공간이 기·화생의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다.>



(도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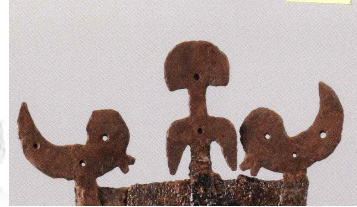
(도36)함안 도항리 출토 미늘쇠, 가야, 고 36,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국립김해박물관』, p.133. <위로 향한 기·화생 표현이다. 맨 위 원문圓文은 아직 새鳥로 화생되지 않은 단계이다.>



(도36)<이처럼 둥근 원과 가운데 작은 원(또는 구멍)으로 구성된 문양인 원문圓文은 청동기 시대에는 태양 표현이고 삼국시대에 이르면 대부분 가장 간단한 연꽃 표현이 되었다. 이 문양에서든 물론 기·화생이 진행된다. 그리고 가운데 작은 원(구멍)은 기·화생의 중심이기도 하다.>



(도37)함안 도항리 출토 미늘쇠, 가야, 고 58,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국립김해박물관』, p.134



(도37-1)함안 도항리 출토 미늘쇠, 가야, 고 58,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국립김해박물관』, p.134



(도38)함안 도항리 출토 미늘쇠, 가야, 고 60,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국립김해박물관』, p.135



(도39)울산 하대 출토 토기, 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맨 위에 있는 4마리 새는 (도36)~(도38)의 새와 같은 새임이 분명하다. 동작, 자세도 비슷하다.>



(도40)토기, 신라, 고 19.6, 호림박물관, 『한국 토기의 아름다움』, 2001년, 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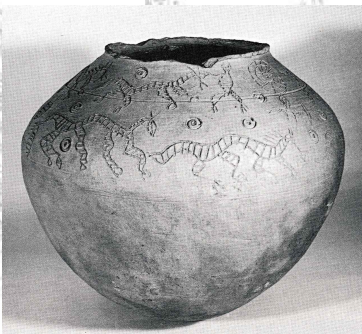
(도40-1)<새의 표면에 작은 원문으로 표현한 연꽃이 있다. 이 새는 바로 연꽃에서 화생된 새이며 (도36~)(도39)와 같은 새 그리고 백제금동대향로에서는 정상에 있는 봉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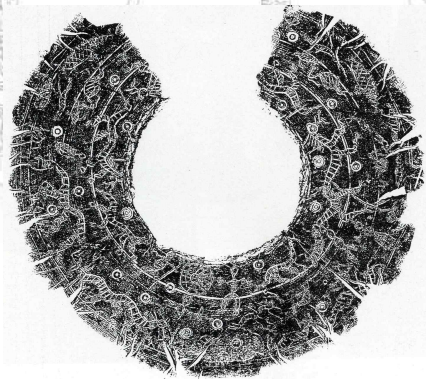
(도41-1)<물상과 작은 원문이 없고 단지 연속 산문만 있다. 반면 구연(주둥이 쪽)의 아래 쪽에는 물상(物象)과 연속 산문 그리고 작은 원문(연화문)이 있다. 이로 볼 때 (도41-1)은 기·화생의 처음 단계이고 구연의 아래 부위는 (도41-1)의 이후 단계 즉 연꽃을 통하여 탄생한 신산 세계로 볼 수 있다. 이 토기에서 산문과 원문 그리고 연화화생은 신석기, 청동기 시대 전통을 이어 받은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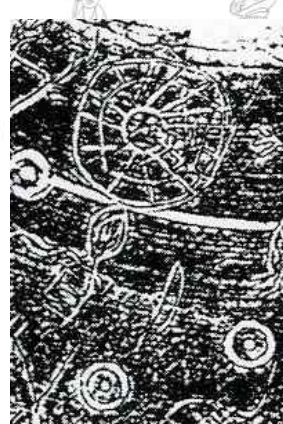
(도41)경주 노동동 11호분 출토 신라 토기 5~6세기, 고 41.1, 국보 제 195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고대의 토기』, p.86.<앞 시대의 전통을 따라 연속 삼각문, 원문 사이사이에 동물 인물 등 물상을 넣었다. 신산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원문은 연화문의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도42)신라 토기 5세기, 고 34,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국립경주 박물관, 『신라 토우』, p. 104.<물상과 작은 원문을 함께 배치한 '신산 세계'이다. 배경이 되는 산은 생략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길고 큰 동물은 용이다.>



(도42-1) (도42)의 탁본 『신라 토우』, p. 105. <이 토기의 신선·용·거북이 등 물상은 앞서 살펴본 바처럼 '신산 세계'의 구성원이다. 작은 圓文(라)들은 앞서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연화화생을 진행시키는 작고 간단한 연꽃이다.>



(도42-2)<이 태양문은 청동기시대 표현을 계승한 것이다. 인물은 신선이다.>



(도43)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토기, 가야, 고 64.8,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고대의 토기』, 1997년, p.76. <연속 반원문(반원문 둘을 합하면 원문圓文이다. 따라서 연속 반원문은 연속 원문이다), 연속 삼각문, 덩굴 연화문, 작은 원문, 연속 물결문 등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모두 단순한 배치가 아닌 기·화생을 진행하는 문양, 상호 동격 호환 교호되는 문양이다. 그리고 앞 시대(신석기·청동기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문양이다.>



(도44)아산 영암리 출토 토기, 통일신라, 고 7.0,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2010년, p.243. <이 토기의 반원문, 연판문, 연화문은 각자 별개, 문양, 독립 문양이 아니다. 모두 기·화생을 진행하는 문양, 상호 동격 호환 교호되는 문양, 특히 연화문이다.>



(도45)부여 군수리 절터 출토 벽돌, 백제, 6세기 후반, 길이 28.0,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년, p.74. <우측 좌측의 중신 문양은 모두 연화문이다. 우측은 좌측 연화문을 더욱 기운 넘치게 활발하게 화생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연화문이다. 둘레에 있는 삼각문은 기·화생의 확산 표현이다.>



(도46)창녕 계성 출토 환두대도(부분) 가야, 6세기, 창녕 계성 출토,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우리나라 전통 무늬』 4 금속공예, 2011년, p.381.



(도44-1)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P.243. <위로부터 반원문(이 반원문 둘을 합하면 원문, 연화문), 연판문(연화문), 연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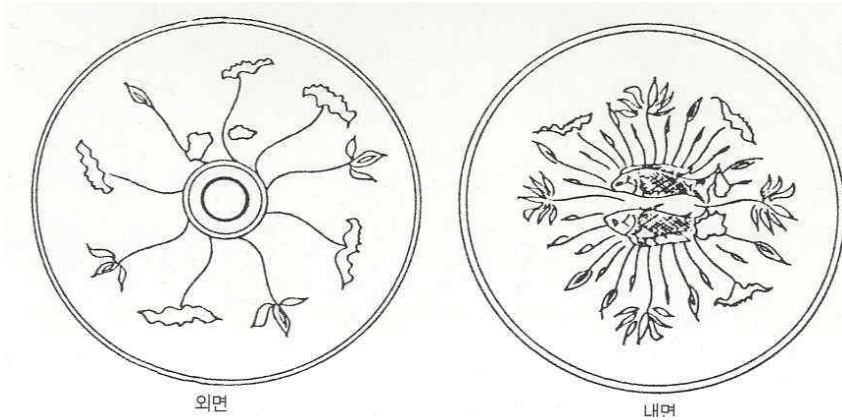
(도47)나주 복암리 출토 금제 연화문, 백제, 지름 2.5센티,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2013년, p.163. <가운데보다 둘레에 있는 네 연꽃은 기·화생을 더욱 활발하게 표현한 연꽃이다.>



(도48)김해 대성동 13호분 출토 파형 銅器, 삼국시대 (가야), 지름(왼쪽) 12.06cm,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p.134. <중앙에서 외곽으로 전개되는 기·화생을 나선형(소용돌이모양)으로 나타냈다. 이 모습을 더 간략하게 하면 삼태극문 태극문이라고 부른다.>



(도50)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목관 부착 금동 장식, 백제, 길이 18.3,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년, p.43. <연꽃에 기·화생을 담았으며 특히 위쪽으로 확산됨을 강조하고 있다.>



(도49)공주 백제 무령왕릉 출토 동제잔 실측도, 백제, 6세기 전반, 고 4.7센티,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2010년, p.90. <한그릇의 내·외면이다. 외면은 중앙 원문으로부터 외곽 여러 방향으로 여러 모습의 연꽃이 화생하는 모습이다. 내면은 물고기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기·화생하는 모습을 연꽃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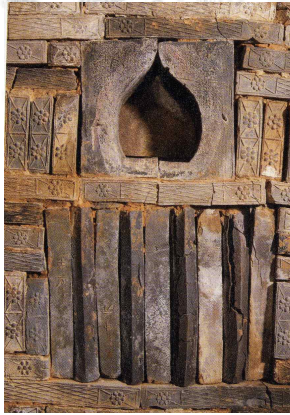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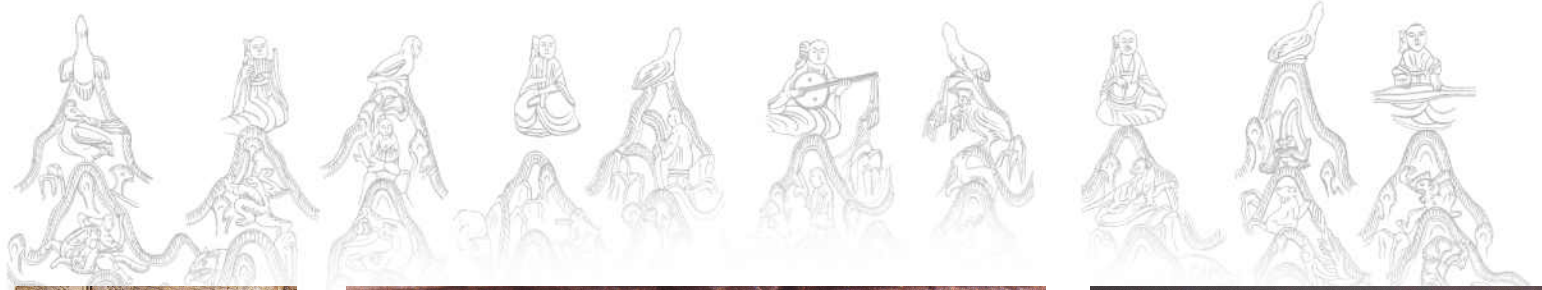


(도52)익산 쌍릉 출토 목관 부착 금동 장식, 백제, 7세기 전반,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국립전주박물관, 『익산 쌍릉』, 2015년, p.254. <연꽃에 기와 화생을 담아 나타냈으며 내부에 직선문도 기·화생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도51)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목관(木棺) 부착 금동 장식, 백제, 고 8.9,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국립부여박물관, 『하늘에 올리는 염원 백제금동대향로』, 2013년, p.120. <연꽃에 기와 화생을 담아 나타냈으며 특히 기·화생 확산이 상승됨을 나타냈다. 내부에 직선문도 기·화생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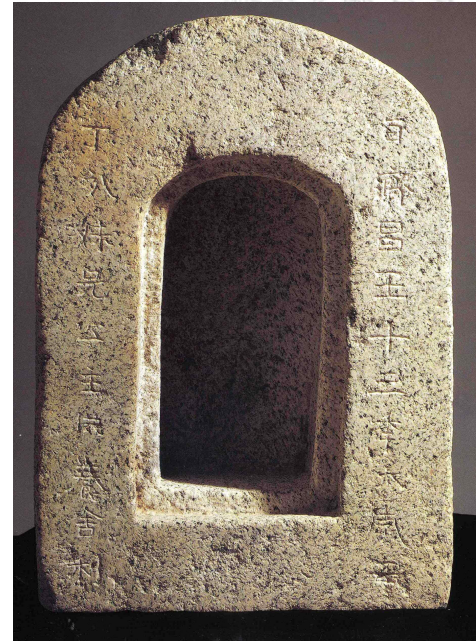
(도53)익산 쌍릉 출토 목관 부착 금동 장식, 백제, 7세기 전반,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국립전주박물관, 『익산 쌍릉』, 2015년, p.171. <(도52)가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의 연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54)공주 무령왕릉 벽 등감(燈龕), 공주 웅진동 57번지, 백제, 6세기 전반, 사적 제13호, 국립공주박물관·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집 논고』, 2012년, p.98.



(도54-1)공주 무령왕릉 등감(燈龕), 백제문화개발연구원, 『백제와전도록』, 1983년, 도555. <이 감실의 모습은 등잔을 중심, 중앙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외곽으로 발생된다고 여긴 빛으로 대표되는 기, 화생의 모습에 맞춘 것이다. 즉 기·화생이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특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전 고령 출토 청동기(도27))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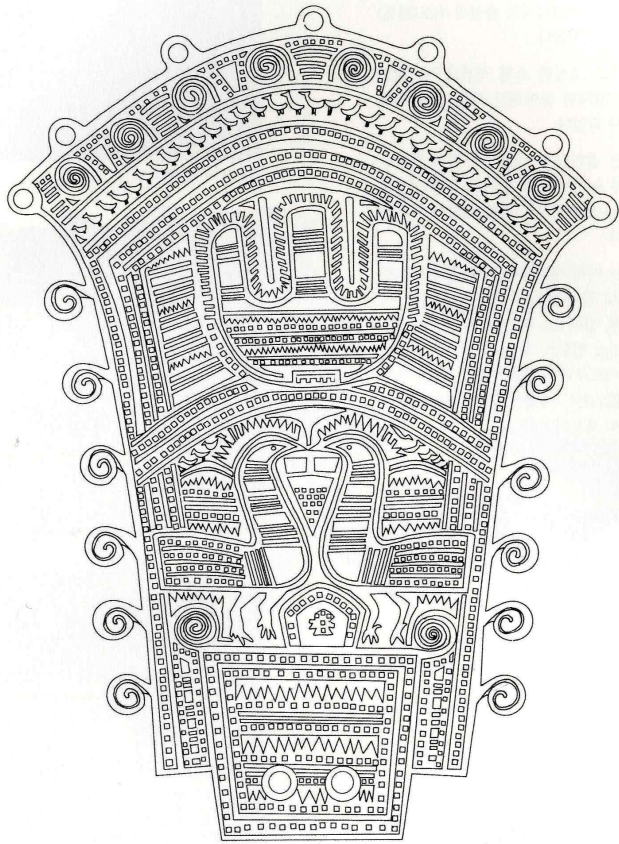
(도55)부여 능산리 절터 출토 백제 창왕명(昌王銘) 석조사리감(石造舍利龕), 백제, 567년, 고 74, 국립부여박물관 소장(부여 4622), 국보 제288호, 국립청주박물관, 『백제 금동대향로와 창왕명 사리감』, 1996년, p.25. <이 사리감의 감실이나 전체 모습은 감실에 안치한(안치될) 사리의 기·화생이 확산과 상승하는 모습에 맞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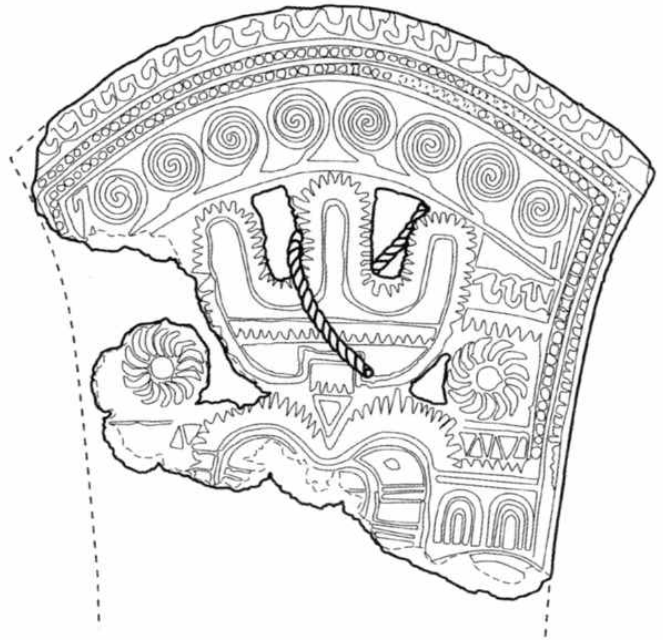
(도56)공주 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식(冠飾)(왕), 백제, 6세기 전반, 고 30.7, 너비 14센티, 국보 제154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공636), 국립공주박물관, 『백제 사마왕』, 2001년, p.24. <연꽃을 덩굴 연화문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그 연꽃의 기와 화생을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도57)공주 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식(冠飾)(왕비), 백제, 6세기 전반, 고 22.5, 국보 제155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공633), 국립공주박물관, 『백제 사마왕』, 2001년, p.26. <왕의 관식과 전체적으로 기·화생 확산 상승을 같게 표현하였다. 다만 아래로 향한 기·화생을 왕의 것에 있는 2개보다 3개를 더 나타내 결과 왕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였다.>



(도58)고성 동의동 출토 청동기 가야, 4세기, 길이 8.92, 경남 고성박물관 소장, 고성박물관, 『고성의 유적과 유물』, 2013년, p.33. <앞 몇 예처럼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확산 전개되며 동시에 위쪽을 향한 상승도 더 강조하였다. 내부에 중심 물상은 새 그리고 산으로 추정되는 물체이다. 외연에 있는 두 모습의 연화문(청동기시대에는 태양문)은 이 청동기 전체에서 나오는 기·화생 표현이다. 앞 시대부터 전승된 전통 문양 표현에 신대륙 인디안 문화가 수용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도59)영광 화평리 수동 출토 청동기, 길이 5.7, 국립나주박물관 소장,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2013년, p.73. <전체적으로 (도58)과 동일한 배치를 하였다. 다만 (도58)보다 직선문 대신 여러 모습의 연화문을 더욱 많이 나타낸 차이가 있다.>



(도60-1)<연꽃 두 송이다. 이 연꽃 문양은 청동기 시대에는 태양문이다.>



(도61)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 출토 금동 관모, 고 23.8, 전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2013년, p.133. <관모 자체를 연꽃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내부에도 연화문(덩굴 연화문)을 가득 표현하였다. 이 연화문은 다시 윗쪽으로 상승하는 기·화생을 역시 연꽃 모양으로 나타냈다. 연꽃봉오리에서 윗 부분은 멸실되었다.>



(도62)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백제 6세기경, 고 25.5, 관모 고 17.0, 국보 제 29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5860), 문화재청, 『문화재대관』 국보 금속공예, 2008년, P.115.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외관은 밑 태를 기반으로 삼아 자라는 연꽃 모양이다. 연꽃은 3곳에 배치하였는데 모두 생동감 넘치는 모습, 덩굴 연화문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 연꽃들은 좌우 확산과 상승을 강조한 3갈래 모습, 즉 전통적인 기·화생을 담은 연꽃 표현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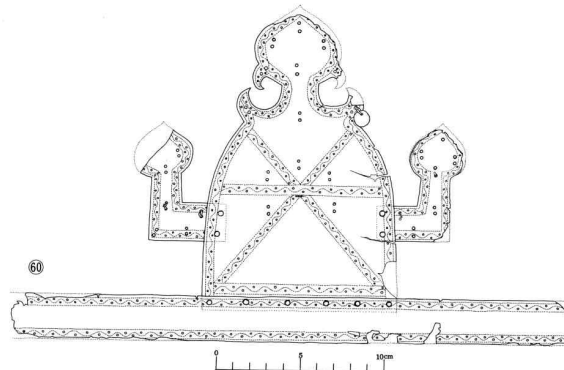
(도62-1)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관모(내관), 백제, 6세기경, 고 17.0, 국보 제29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5860), 국립공주박물관, 『백제의 관冠』(도판해설), 2011년, P.98. <전체도 연꽃 모양이고 표면에도 연꽃을 표현하였다. 표면의 연꽃 역시 외관에서 처럼 3갈래 표현 등으로 확산과 상승 표현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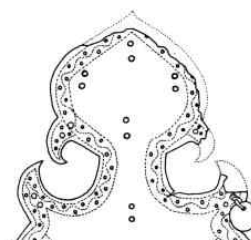
(도63)경주 서봉총 출토 금관, 신라, 5세기경, 고 30.7, 보물 제 33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14319), 『한병삼 편저, 『국보』 1 고분금속, 서울 예경산업사, 1992년, 도66. <나무와 사슴뿔 모양 그리고 봉황 3마리를 나타냈다. 이 금관(특히 나무와 사슴뿔)의 끝은 기·화생의 대표적 표현인 연꽃 모양이다. 특히 나무의 경우 '출'자 혹은 '산'자로 보이는데 이 독특한 모습은 중앙에서 좌우 방향 그리고 상하 가운데 위를 향하여 확산, 성장하는 모습이다. 곡옥이나 영락도 이 금관 전체에 기·화생 표현을 더욱 부각, 가세하기 위하여 부착하였다. 이 모두는 청동기 시대 동경, 팔주령 등과 가장 관련이 깊다.>



(도64)고령 지산동 32호 묘 출토 금동관 가야, 5세기경, 1978년 출토, 높이 19.6, 보물 제201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나주박물관, 『신촌리 금동관, 그 시대를 말하다』, 2017년, p.169.



(도64-1)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지산동고분군』, 1981년, p.26. <이 도면으로 보면 매달린 작은 원판은 본래 30 여개이다. 금동관 전체는 연꽃 모양이다. 연꽃의 기·화생을 확산과 상승으로 표현한 것을 형태와 문양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내부 직선문은 기·화생이 중앙에서 외곽으로 확산, 전개되는 모습인데 이는 청동기 시대 동경이나 팔주령 등의 표현을 이어받은 것이다.>



(도64-2)<중앙과 좌우로 화생하되 상승을 더 강조한 모습이다.>



(도65)청자, 고려, 12세기, 고 7.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전주박물관, 『불교 청자 서화 그리고 전복』, 2009년, p.38. <전체 모습도 연꽃 모양이며 이 모두를 기·화생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선(소용돌이), 와상(渦狀) 모습으로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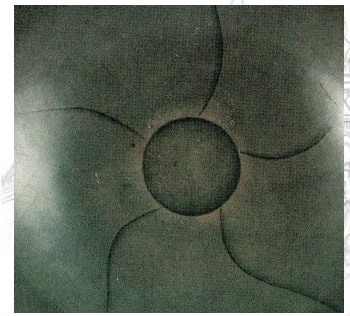
(도67)청자 합, 고려, 12세기, 고 8.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2002), 국립공주박물관, 『우리 문화에 피어난 연꽃』, 2004년, p.78. <모습이 다른 꽃이지만 덩굴이나 선으로 모두 연결됨에서 보듯 하나의 꽃 즉 연꽃이다. 뚜껑 측면에 있는 연꽃은 가늘고 길쭉하게 표현하였기에 대부분 국화로 잘못 인식한다.>



(도67-1)<중앙 연꽃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화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도66)청자, 고려, 12-13세기, 고 5.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제주박물관·호림박물관, 『고려 철화백자』, 2018년, p.142. <약간 능형(稜形)으로 나타냈는데 이 능형 역시 연꽃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가운데 원도 연꽃의 가장 간단한 모습이다. 이처럼 전체나 세부(중앙 등)을 연꽃 모습으로 하고 기·화생을 더욱 활발하게 보이려고 표면에 나선문(소용돌이문)을 나타냈다.>



(도66-1)<원(연꽃)으로부터 화생하고 확산하는 모습이다.>



(도68)청화백자 연화문 합, 조선, 1857년경, 고 15, 구경 25, 국립중앙박물관, 『새천년 새유물전』, 2000년, 도98. <흔히 보상화문으로 잘못 알려진 연꽃이다. 이 모습은 다양한 연꽃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역시 중앙 연꽃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화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임진왜란 이후 도자기 문양에서 연꽃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 모습만이 18~19세기에 일부 남았다.>



(도68-1)<중앙에서 매우 활발하게 외곽으로 기·화생이 확산되고 있다.>



(도69)청동 거울, 고려 말~조선 초, 14~15세기, 7.2×6.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10992), 국립중앙박물관, 『새천년 새유물 전』, 2000년, 도30.<가운데 연꽃은 태극과 동격 호환 교호 관계로 배치한 것이다.>



(도70)청화백자 태극문 사각합, 조선, 19세기, 고 2.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수정 375)



(도71)분청사기 병 조선, 16세기, 고 2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화출판공사 발행, 한국미술전집10 이조도자, 1973년, 도45. <중앙의 원으로 표현한 연꽃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화생이 확산되고 있다.>



(도73)분청사기 병 조선, 15세기, 고 20.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삼성문화재단 발행, 『분청사기명품전』 2, 2001년, 도9. <중앙에 타원형 모습 3개는 연꽃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중앙의 연꽃이 좌우로 화생된 모습이다. 그리고 이들로 부터 외곽 여러 방향으로 기·화생이 더 확산되고 있다.>



(도74)분청사기 병 조선, 15세기, 고 35.0, 개인 소장, 삼성문화재단 발행, 『분청사기명품전』 2, 도2. <기·화생이 중앙에서 외곽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며 동시에 상승을 표현하였다. 중앙은 흔히 모란문으로 잘못 불리거나 잘못 알려진 문양인 연화문이다. 다양한 모습의 연화문 가운데 하나이다.>



(도72-1)<중앙의 연꽃과 닮은 덩굴 연화문의 연꽃>



(도72)분청사기 병 조선, 1466, 고 22.1, 국보 제172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명품도록 1 고미술 1, 1996년, 도109. <역시 중앙의 원으로 표현한 연꽃에서 외곽으로 화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둘레의 덩굴 문양도 덩굴 연화문이다. 이 판단은 중앙 연꽃과 같은 모습의 연꽃이 매달린 데서도 뒷받침 된다.>



(도75)청자 매병, 고려, 14세기, 공주 반촌리 출토, 고 36.9,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공주 1072),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2018년, p.123



(도75-1)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겉 표지 앞면).<중앙에서 외곽 확산, 전개되며 동시에 상승도 표현하였다.>



<참고문헌參考文獻>

- 趙源喬(趙容重), 「百濟 佛像光背에 關한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0.8).
- , 「中國 博山香爐에 關한 考察(上)」, 『미술자료』 제53호(1994.6).
- , 「中國 博山香爐에 關한 考察(下)」, 『미술자료』 제54호(1994.12).
- , 「蓮華化生에 登場하는 裝飾文樣 考察」, 『미술자료』 제56호(1995.12).
- , 「動物의 口에서 비롯되는 化生 圖像 考察」, 『미술자료』 제58호(1997.6).
- , 「蓮華化生山 圖像과 그 交互에 關한 연구」, 『미술자료』 제60호(1998.11).
- , 「朝鮮總督府 건물의 文樣에 對한 考察」, 『中央史論』 第十·十一合輯(중앙대학교 사학과 1998.12).
- , 「百濟金銅大香爐에 關한 研究」, 『미술자료』 제 65호(2000.12).
- , 「扶餘 外里 출토 백제 文樣塼 研究」, 『미술자료』 제74호(2006. 6).
- ,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發見 舍利莊嚴具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 第49輯(大田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9.2).
- , 「公州 金鶴洞 절터 출토 石造 光背에 關한 研究」, 『考古學誌』 第17輯(국립중앙박물관, 2011.12).
- , 「百濟 武寧王陵 出土 銀製托蓋에 對한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第14輯(國立中央博物館·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13.5).
- , 「高句麗 기와 文樣에 對한 研究」, 『考古學誌』 제19집(2013.12).
- , 「韓國 古代 氣 表現에 對한 研究」, 『文化와藝術研究』 第四輯(서울,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2014.12).
- , 「韓國의 古代 ‘神山 世界’ 圖像 研究(上) -三國時代까지, 氣 表現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第78輯 2015.6, 韓國思想文化學會).
- , 「韓國의 古代 ‘神山 世界’ 圖像 研究(下) -三國時代까지, 氣 表現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第79輯 2015.9)(韓國思想文化學會).
- , 「扶餘 陵山里 出土 百濟金銅大香爐 研究」(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8).
- , 「연화문蓮華文에 對한 신연구新研究, 새 주장」(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637회, 2019. 5. 8).
- , 「고려·조선시대 도자기의 蓮華文 研究」, 『文化와藝術研究』 第十三輯(2019.6).
- , 「연화문(蓮華文)을 모란문·국화문·보상화문·여의두문 등으로 잘못 판단한 예 -도자기를 중심으로-」(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제648회, 2019. 7. 24).
- , 「고려·조선시대 도자기에 그린 ‘나무처럼 표현한 연꽃 그림’의 研究」(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제651회, 2019. 8. 14).
- , 「조선시대 도자기에 그린 ‘산을 표현한 연꽃·산을 화생하는 연꽃’ 표현(도상)의 研究」(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제653회, 2019. 8. 28).
- 요시무라 레이吉村怜, 『中國佛教圖像の研究』 (東京 東方書店, 1983).

꾸라오짬 침몰선에서 발견된 베트남 청화백자

박성혜 | 가네코 가즈시게실 | 19:00~19:30

지금으로부터 570여년 전 수십 만점의 도자기를 실은 선박이 베트남의 중부지역 꾸라오짬 섬 부근에서 침몰하였습니다. 1997년 5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진행한 수중발굴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규모는 길이 29.4m, 너비 7.2m이며, 19개의 선실을 지닌 무역선으로 24만 여점의 엄청난 유물이 인양되었습니다.

침몰선의 연대는 베트남의 레왕조(1428-1788)에 해당하는 15세기 중후반으로 파악되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선박에서는 베트남의 청화백자를 비롯하여 청자, 채회장식이 있는 도자기, 갈색, 청색, 옅은 백유를 입힌 도자기 등 다수의 유물이 인양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청화백자는 14세기부터 출현하여 장식용으로 사용되다가 15세기에 이르러 널리 발전하면서 수출용과 민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자기가 되었습니다. 청화백자에 표현된 문양에는 국화, 연꽃과 같은 꽃잎 무늬와 용, 봉황, 말 등과 같은 동물문양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전에 전시되어 있는 세 점의 청화백자 역시 꾸라오짬 섬에서 발굴된 것으로 15세기 베트남의 청화백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가장 왼편에 있는 청화백자 대접을 살펴보면 겉면에는 국화꽃 문양을 표현하였고, 대접 안쪽 바닥면에는 힘차게 구름 위를 나르는 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굽 바깥쪽에 초콜렛 색의 유약이 둘러져 있는데 이는 15세기 베트남 청화백자의 장식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 청화백자 대접과 병
15세기,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그림2 좌측 청화백자 대접 안쪽 바닥면



제66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0월 30일)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1)

유세롬 | 조선1실 | 19:00~19:30

“산인山人 유정惟政은 선왕의 조정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구하러 나갔으니, 참으로 의승義僧이라고 할 만 하다.”

— 『광해군일기』 —

사명대사로 친숙한 사명四溟 유정惟政(1544-1610)은 임진왜란(1592-1598) 때 의승군義僧軍을 이끈 승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승병장으로서 활약이 워낙 뛰어나 가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사명대사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선승禪僧으로 명망이 높았으며 강화와 전후 처리를 위한 외교에서 큰 역할을 한 외교승이기도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BTN불교TV의 공동기획으로 이루어진 ‘일본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 특별 공개’전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명대사의 외교승으로서의 면모,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이끌어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구도자求道者라는 승려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한 사명대사의 뜻이 담긴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와 외교 교섭을 위해 왕명을 받고 1604년 일본으로 건너 가, 그해 12월부터 1605년 3월까지 교토에 머물렀습니다. 사명대사는 교토에서 승려들과 시문詩文과 불교 교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일본 정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사명대사가 교토 고쇼지의 승려 엔니와 교류하며 남긴 글이 바로 이번 특별 공개 대상이 되는 유묵입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사명대사의 친필 유묵 5점 중에는 임진왜란 후 10여 년간을 돌아본 감회, 스승인 서산대사의 뜻을 이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는 내용, 고쇼지의 승려 엔니에게 수행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생을 구하는 일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라는 승려 본연의 길에 연연하지 않고, 그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도탄에 빠진 백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 사명대사의 의지가 글 전체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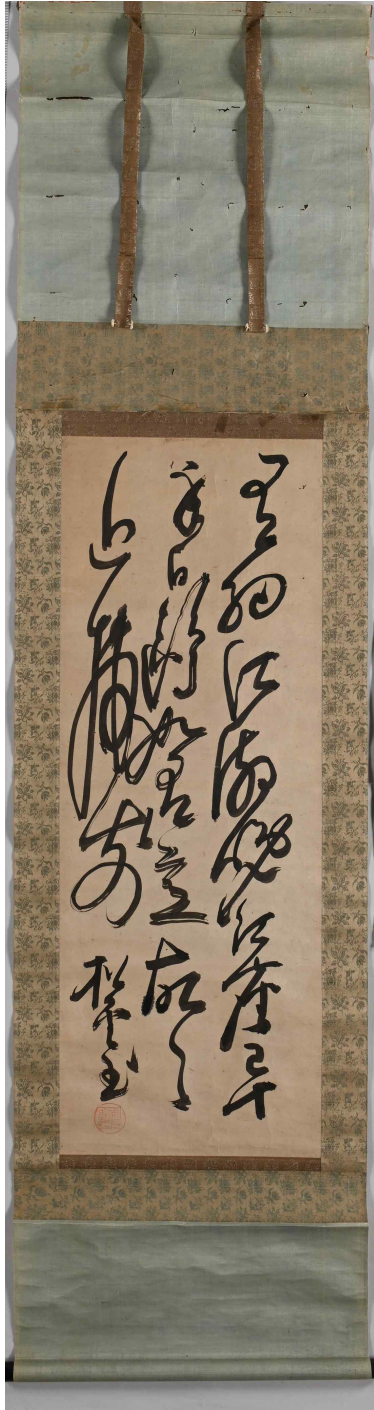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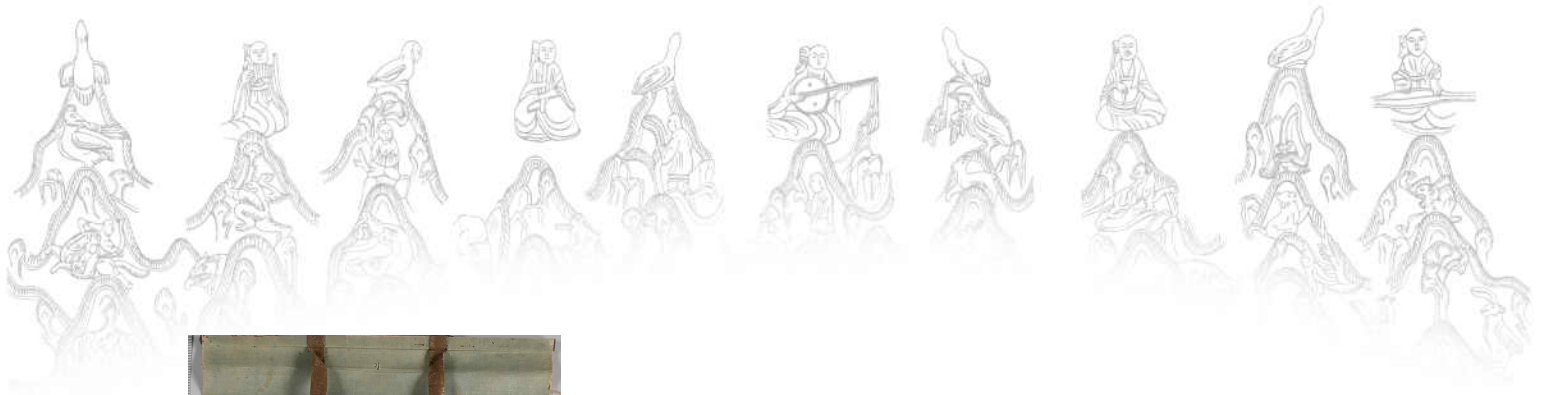


그림 108

「벽란도」의 시운을 빌려 지은 시

有約江湖晚
紅塵已十年
白鷗如有意
故故近樓前

강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지 오래되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낸 것이 벌써 10년이네.
갈매기는 그 뜻을 잊지 않은 듯
기웃기웃 누각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이 시는 임진왜란부터 10여 년 간을 돌아본 사명대사의 감회를 표현한 시입니다. 일본에서의 임무를 잘 마무리한 뒤에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선승禪僧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갈매기’는 옛사람들의 글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벗’ 혹은 ‘은둔’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종종 쓰였습니다. 고려 말 문신 유숙柳淑(1324-1368)의 시 「벽란도碧瀾渡」의 시를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로, 사명대사의 한문학적 소양과 힘 있는 서체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